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545장** **다같이**

1. 이 눈에 아무증거 아니 봐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후렴〉 걸어가세 믿음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위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증거 없어도
2.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소원 주안에서 이루리
3.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로마서 10:16-17(표준새번역)** **인도자**

- 16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에게서 들은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설 교 **"듣는 믿음"**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자녀를 위한 기도(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2. 부모님을 위한 기도(자녀들)

하나님! 아빠와 엄마가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자녀들을 위한 말씀 요약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제일먼저 해야 할 일은 잘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 들어야 하나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가르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 선생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게 되고, 질문이나 시험을 봐도 우리는 틀린 답을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쏟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은 예배, 성경책 등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듣는 믿음”

(로마서 10:16-17)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말미암는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곧바로 듣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신앙을 이루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책망한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걷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사65:2). 이처럼 말씀을 듣는 것 이상으로 순종과 행함이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구약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들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강조한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요청되었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명령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렘29:18-19).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피조물인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슥7:13). 아무리 간절히 간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우리는 듣기보다는 모두가 말하고 싶어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 문화는 자신의 이야기와 주장을 들어주길 원하는 현대인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모두가 자신의 소리를 내고자 하는 시대에, 세상은 이미 듣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은 제품을 알리고 장점을 설명하는 마케팅 대신, 소비자들의 요구와 취향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정치도 과거에는 국민이 생각하지 못한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주목받았다면 오늘날은 국민들의 뜻을 묻고 듣는 정치가 자리를 잡았다. 좋은 리더, 참 지도자에게는 듣는 능력, 경청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예수님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23:11)고 말씀하셨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상황, 아픔, 필요 등을 잘 들어야 한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가르치려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사람들의 실존적 삶을 듣는 것에서 출발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교우와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경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예전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 예배의 형식이나 모임의 방식은 변경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삶의 자세는 변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교회의 공예배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지켜나가야 할 사명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어느 때보다 “듣는 믿음”이 절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자.